

## 젊은이 페이지

(대학부)

### 98 대학부 겨울수련회

#### 도전과 은혜가 넘친 훈련의 장



'우리  
가 이 일에  
중언이라'  
는 표어 아  
래, 총현기  
도원에서  
3박 4일간  
(9월 ~ 12  
일)의 대학  
부 수련회  
가 있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호  
르는 복음  
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

으며 우리 젊은이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시  
대의 중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김동호 목사의 개  
회예배로 수련회가 형식하게 시작되었다.

수련회 첫째날 오후에 보게 된, Open Door 선교회  
에서 제작한 선교영화 'Behind the Sun(이슬람의 붉은  
태양)'은 대학부 지체들에게 단일한 신앙태도에 대한  
부끄러움과 믿음의 열정을 동시에 일깨워 주었다. 관  
람 이후 나눔을 갖게 된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하며 평  
안한 신앙생활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지체들과 도전  
을 받았다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영화가 실  
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해  
도 잘 다가가진 수 없던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와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조금 더 커짐을 느꼈다. 이 날 대설로 인  
해 저녁차로 들어오려 했던 대학부원들의 발이 묶여  
함께 할 은혜의 자리가 가까웠다.

둘째날 오후에 있었던 공동체 훈련시간에는 '죄인  
거 풀기, 만나와 매추라기, 코 토 코, 파도를 넘어, 중증  
나는 새'의 5가지 게임이 있었는데 간혹 생기는 부상  
전만 배면 즐거움 시간이었다. 그리고 수련회 기간중  
전 처음 갖게 된 임무스(캄프스별 모임) 모임은 98년  
한해를 성실 각 지구장과 임무스장을 선출, 선교에 대  
한 비전을 각자차 처한 장소에서부터 다짐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오랜만에 부활된 선택식 특강

은 모두 7개의 주제 - 1. 리더를 위한 상담과 치유(강  
친구 간사) 2. 복음적인 이성교제(송정미 간사) 3. 세계  
관(최진우 간사) 4. 교회란 무엇인가(이상열 간사) 5.  
가정(김동호 목사) 6. 신앙인의 대학생활(이종대 간사)  
7. 선교회 중보기도(김지효 스태프) - 로 열렸다.

셋째날에 있었던 기존의 학년모임에 결속력을 부  
여한 Before God Part 1, II는 성경 대본을 직접 만들  
고 발표하는, 진지하고도 흥미로우며 은혜로운(?) 시간  
이 되었다. 내용은 사도행전 전체로 한시간 동안 연설  
하고 약 두시간 동안 발표였다.

3일만에 이어진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행 2:1-  
13)', '분명한 만남'(행 9:1-9)', '갈등의 파도를 넘어'(행  
15:36-41)' 단 제목의 저녁부흥회에서 김동호 목사의님  
의 말씀을 통하여 대학부 지체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갈 바를 계획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예수 그  
리신도의 살아 계심에 흠뻑 취할 수 있었다. 특히 마지  
막 날 부흥회 때에는 '갈등의 파도를 넘어'란 주제대담  
집회식 구석구석에 돌아다니며 서로를 위해 손을 잡거  
나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져 우리들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다.

짧지만 깊은 은혜 아래 넉넉한 휴식 또한 즐길 수  
있는 감사한 수련회이었다.

#### 수련회를 다녀와서

### 그냥 수련회니까, 그러나...

황 정 연(대학부 1학년)

처음에 '대학부 수  
련회는 무엇이지 다들  
까?' 하며 별 기대  
없이 '그냥 수련  
회니까' 하며  
참석했다. 그  
러나 3박 4일  
간의 수련회  
가운데 있었  
던 여러 가지  
행사, 즉 부흥  
회, 선택식 강의,  
친교 등을 통해 된  
가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고동부 때는 입시문제라  
는 것도 있었고, 자신의 마음을 연다는 것이 어색해서  
동기들과 친하기는 하지만 무언가 부족한 듯했던 관계  
가 대학부라는 공동체에는 없었다. 자유라는 말이 느  
껴지는 분위기였다.



수련회 기간 동안 가장 기뻐했던 것은 믿음의 선배들  
속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한없이 장난스러워 보  
이며 허물없이 대해 주는 선배들 속에서 '교재란 이런  
것이지구나'를 느꼈다. 특히 신앙문제 앞에서 진지하게  
서, 우리 후배들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우  
리의 고민을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 주고 기도해 주는  
선배들이 너무 고마웠다.

부흥회 때, "수련회는 은혜 받으려고 온 거야" 하며  
기도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이  
미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 삶이 주 안에서 살  
아질 수 있고, 또 수련회를 참석함으로써 영적인 성장  
과 대학부 사람들과의 교제를 허락하겠다는 것 말이다.  
하나님을 감사기도를 드렸다. 난 내가 살아온 20년  
동안 하나님이나 나를 바라보지도 안 해왔다는 것을 인  
식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항상 나  
의 유익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진  
정으로 하나님이나 나에 대하여 함을 배우고 내가 힘들  
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닌지, 그리고 교만  
으로 가득 차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  
던 것이 깨어났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라는 것을 확실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고통을 아시  
고 친히 간구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일, 내가 삶을 살아  
가면서 하나님의 유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일, 정말  
모든 일을 감찰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 감사했다.

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목회자가 되어야 할  
데에 자신이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좌절감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  
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게일 그 일에도 설 수 없  
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단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  
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  
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표현하기 부끄  
러워했다. 바로 이러한 고백, '이 일은 하나님  
이 하셨습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  
요.'

이제는 아니다. 내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을 말하고 싶었다. 날 사랑하셨, 나에게 주시  
는 영광, 주 안에서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개  
획의 한 부분임을 감사한다.

### 사모하는 자리

차 병 준

(목사, 8교구 신자)

"내가 여호와의게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  
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  
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운 이름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  
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 27:4)

우리 한민 이원 성전을 상상해 봅시다. 그 성전  
의 모습은 우리가 보아왔던 것과 다른 아주 한국  
적인 건축양식을 한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이른  
팔 한미로부터 깊은 기둥이 서 있었고, 막대한 잘  
짜인 송문으로 깔려 있습니다. 천공과 벽이 있  
는 한지 문과 창들이 있고 문고리도 모양이 동그  
란 듯고리입니다.

그런데 한옥편에 아주 특별한 곳이 발견되었  
습니다.

그쪽 막대한 귀한 돌이 깔려 있었고 보통 사람  
도 그곳은 무언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돌판에 이곳저곳 새렸을 때 돌  
판 끝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까.

"사모하는 자리"  
귀한 돌이 깔린 그 곳은 바로 성전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모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어떤 곳에서든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별되고 귀히 여김을 받는 자  
리 '사모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  
겠습니다. 늦은 밤 마음을 합하여 울리는 것이, 추  
운 겨울 새벽에 무릎으로 나가는 자리, 그곳이 우리  
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 선교를 꿈꾸는 대학부원들, 인터뷰 이후 무엇을 하고 있나

(취재 / 4학년 최정은)

대부분이 20대 초반으로 구성된 대학부 지체들에  
겐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들에게 우리  
교회의 선교에 대한 적극적 방壁上 따라 다뤄왔던데  
노출될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대해 대학부에서는 약  
100명의 지체들이 헌신의 뜻을 밝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되는 '제1회 기도회'와 더불어 수련  
회 이후 두 주간 30여 모임이 생겨났다. 첫째와 셋째  
주 주일 일요일 9시 30분에는 나라별 팀장들이 모여 중보  
기도를 한 후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외에도 팀장들은 각주로 모이게 된다. 또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교육받  
는 시간을 갖는다.

현재 대학부의 나라별 팀은 12개 -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우간다, 방글라데시, 중국(1,2), 동티모르,  
인도(1,2), 케냐, 수단 - 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교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닌 '해  
당 지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 문화적 차이로 자칫하면 범할 수 있는 행동 등을  
삼가할 줄 아는 훈련을 하고, 자기 전이나 갔다온 이후  
에도 끊임없이 진정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도를 갖자'  
란 취지 아래, 나라별 조사와 선교사들과의 연계를 병

행하며 기도와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자 학년별 현황은 2학년과 3학년 지체들이 가  
장 많지만, 그 다음으로 5, 6학년들이 많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군대와 당장의 진로 문제에 서 있  
는 3, 4학년 형제들의 비율이 비교적 적어 지원자가 나  
년별 비율은 '형제:자매=2:3' 정도이다. 교회의 당초  
계획이 진행과정 가운데 수정되고 변모하는 부분이 있  
어 약 100명의 헌신자들이 70명으로 줄어든 것에 우리  
가 있다.

선교는 가장하거나 전문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젊은이들의 선교에 있어서 중요  
한 것은 그들이 어떤 교회의 선교방식에 따라 정말 헌  
신할 마음을 갖고 지원했는지, 아니면 타지역에 대한 호  
기심에서 지원했는 간에 그들이 처하게 될 곳에서 복  
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만 그칠  
수 있었던 선교에 대한 사고의 폭과 마음의 깊이가 척  
도이자 자아비판은 늘어난 것이란 기대감이다.

선교를 꿈꾸는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연합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준비를 우선시하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팀원들을 이끌게 될 12  
명의 팀장들을 위해 기도하자.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최상의 선을 준비하신 하나님

최 계 순  
(집사, 16교구)

큰 아이가 미술을 참으로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 가정의 경제 여건은 열악하기에 틈날 때마다 아이로 하여금 포기해 줄 것을 주입시키곤 했다.

예고에 입학할 땐 원하던 아이는 인문고에 입학하였고, 그 후로는 그림, 붓, 물감 등 그림에 관한 모든 것을 싫어했고, 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미술 시간도 짜증내며 싫어했다. 그리고 가슴의 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하곤 했다. 병원에 가 봤지만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미술선생님이 아이를 맡길 것을 요청해 오셨다. 모든 것을 자신이 처리할 테니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몇개월 동안 후회없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전했었던 것이 이르러하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무미라 드릴 말이 없었다. 후원자도 이미 준비되었으니 결정하고 하겠다. 합구무연인 나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을 위하여 아이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때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 있었다. 나의 전 재산이요 나의 생명의 고백이 그였다.

불가항력의 어떤 힘이 끌리어 우리 부부는 아이를 맡기게 되었다. 후로는 참으로 즐거워 웃기 시작했다. 후로는 가슴의 통증과 답답함을 잊어버렸는지 소리내어 웃고 방을 지새우고 지칠 줄을 몰라했다. 어느 날이던 신문에 교회 사에서 디자인 학교를 세운다는 소문이 실렸다. 세계에서 뒤처지는 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학교와 제휴하여 설립한다는 기사였다. 3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기대할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어느덧 3년이 흘렀다. 대학 선택에

고심하던 때에 우연히 부부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들로부터 학교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3년 전 그 학교였다. 틈날 때마다 스크랩을 보며 꿈을 그렸고 그 아이는 정말었다. 간판보다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고 있었다.

면접시험날 아이와 나는 새벽이 열리기도 전에 학교를 찾아갔다. 면접을 하기도 전에 TV가 켜졌고 학교 소개가 나왔다. 실례임과 고대에 차 있던 아이는 화장실에 가서 울고 있는 것이었다. "괜히 왔어. 엄마, 나 못해." 나는 버럭 화를 냈다. "지금까지 너의 힘으로 해왔다고 생각하니?"

시험 방법이 문제였다. 3년 동안 밥을 지새우며 그랬던 구성과 맛집이 무용지물이었던 것이었다. 수능이 끝난 후라 시험준비가 임박했는데 준비해야 할 작품은 스물다섯개나 되었다. 그 앞에 비티고 서 있는 줄은 문 앞에서 아연실색하는 아이는 누가 알았도 못했다. 이미인 나는 참으로 딱했다. 손잡고 기도해줄 수밖에 무슨 방법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널 사랑해서, 너를 위해 가장 최상의 선을 준비해 두셨지." 시편 1편을 읽어 주며 양손에 손을 얹어 주님께 참으로 사랑이었다. 자상하시고도 성세하신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어 숨겨두셨던 것을 한꺼번에 아이 앞에 펼쳐 주셨다. 아이가 마음껏 작품을 잡고 닦을 수 있게 손을 얹어 주셨다. '예수' 이름 뿐인 우리 앞에 합격시 될 여러 손길들을 주님은 준비해 두셨던 것이다.

벅스다 들들에서 보리떡을 바친 아이처럼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맞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숨쉬고 있다.

## 청년부 거울수련회를 다녀와서

# 거룩한 옷 입은 청년들이 당신께 나아옵니다

류 정  
(청년부)

청년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는 말씀을 마음에 뜨겁게 품고 지난 1월 16, 17일 춘천기독교대학에서 거울수련회를 가졌다.

수련회를 '어는 에베'를 통해 목사님의 '헌신하라. 믿으라. 열정을 가지고 청년의 때에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속사람을 깨우치기에 넉넉했고, 세상의 열려와 근심들로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생명의 뜨거운 숨결이 녹여 내어 주의 청년들로 하여금 주님의 권능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헌신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에 충분했다.

이후 사역팀별로 모임을 가졌다. 청년부 지체들이 아이의 탈에 속하여 각 팀별로 사역의 비전을 공유하고, 일년간의 사역을 계획했고, 사역과 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깊은 밤은 어느덧 새벽을 향해 달라가듯 있었지만 불을 밝힌 밤마다 뜨거운 심령들은 잠을 잊은 채 거룩한 꿈을 입고 주께 나아가는 청년의 모습을 서로에게서 발견하는 기쁨으로 찬양했다.

다음날, 아침 QT를 마치고 우리들은 기도인 예배당에 모두 모인 후 무언가를 나누어 받았는데, 형제들은 목장갑, 자매들은 고무장갑! '해산!'이라는 외침에 형제들은 기도인 뒷담을 있는 나무들의 가지치기와 벌초작업을 했고, 자매들은 기도인의 방과 복도, 화장실 청소를 통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굶은 일을 하면서도 참 기쁨으로 열심히 손을 불리는 지체



들을 바라보면 서, 주일 낮 교회에서 그저 얼 굴만 바라보고 서지 지나가면 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귀한 사람의 마음이 통를 일어난 성령의 매는 줄로 정말 하나뿐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 같았다.

점심 식사 후 사역팀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역팀별로 나누어져 계획했던 것들을 다 함께 한 자리에 있어 공유할 수 있었기에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다. 각자의 처소에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서 귀 기울이며 받은 바 사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모습들을 통해 소년된 오직의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않은 미지의 땅까지 전파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침이 있음을 사역팀별 발표에서 목격했다.

예배예배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이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않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일도 없으며, 이루어 나가지 할 일들이 더 많은 청년의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계산과 논리와 이성을 떠나 때론 지혜가 없는 이슬처럼 주께 헌신하는 것이 아버지께 기쁨이요 그것이 또한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리라. 청년의 때에 유혹과 시험이 많을지라도, 정욕을 피하여, 내 마음과 뜻을 정하여 오직 주 예수께 '고정' 시킴으로 요동치는 믿음을 가지고 '줄기' 줄기 줄기 주께 나아가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 이단 시리즈 5

# 아리우스주의(Arianism)

정 현 민

(목사, 16교구 · 법조인전도회 · 도서장학회 지도)

아리우스주의는 '차이와 종족'을 기초로 삼위의 위계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시도였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318년경 알렉산드리아 회회의 주요였던 알렉산드리아 삼위일체론을 철학적으로 설명한대 대해 아리우스가 반박함으로써 논쟁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사실 아리우스주의의 출발은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오리겐(185-254)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리겐은 예수는 성부와 영원히 공존하며, 아버지의 형상이지만 아버지에게 의존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의 사상은 제자 디오니시우스를 거쳐 아리우스에게까지 전수되었으며, 아리우스는 약 70여년간 초대교회에 이단사상에 휘말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의 주장은 유사설, 태초조질설, 선재부인설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사설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동질(호모이오시우스)의 관계가 아니라 우

사(호모이오시우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이며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다. 다만 단원론자와 같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는 전제에서 자신의 본질을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일 수 없으며 피조물로써 인간보다는 뛰어난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중간자(middle thing)로 간주했습니다. 이처럼 성자는 성부의 본질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본질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니케아 신조의 '동질' 개념을 부인했습니다.

둘째로, 태초조질설은 '예수께서 지음받으신 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성자를 성부에게서 '나신' 자라는 의미를 '지음받은 자'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가장 먼저 지음받은 아들은 창조사역을 완수해 돌리는 자로서 성자의 기능은 다 했지만 결코 신은 아니었다는 것

다. 이와같이 성부와 성자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아리우스주의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아리우스에게 영향을 끼친 디오니시우스는 성자를 '만들어진 본 혹은 피조물'로 보았고 성부의 본질에서부터가 아닌 무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코 성부와 동질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창간 8:2와 가장 시 1:4-9에 근거해서 태초 피조설을 내세웠습니다. 아리우스주의의 세대를 거슬러보면 점진적으로 수정되기는 했지만 그 근본사상은 절대적인 초연의 신과 피조물과의 이원론적인 대립에 의한 이교적 사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리우스주의의자들은 니케아 종교회의(325년) 후에도 계속 일어난 종교개혁 후에는 특히 영국의 밀턴이 이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을 약간 수정하여 '아리우스주의 피조물'이라며 성령언어를 인용하면서 피조물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선재부인설은 '예수께서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선재부인설은 종교개혁 당시부터 켜트지 시작했는데 장지에게서 성육신할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이성에 일관해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삼위가 공통적인 본질을 가졌다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수

없다고 전제한 그들은 아리우스가 사용한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 아리우스를 극하게 이들을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지 나치게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계몽사상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서 성경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거해 버리고자 하는 성경고동비평의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상을 비판한 한 책으로, 성경은 아들과 형제라고 아버지께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와 사역과 속성을 가진 분으로 경배를 돌리고 있으며, 둘째로, 성경에 성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요17:3) 성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옳으며,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삼아 아무런 불요도 성자를 피조물로 보는 한 창건 구속이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신성이 없는 것에 대한 구속의 적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그리스도가 창조물이라면 그분보다 피조물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 그에게 있는 수가 없습니다. 아리안주의의 주장대로 그리스도께서 제피조물로서 이 세상 만물과 성령을 창조하셨다면 그는 벌써 신이 아니고서야 동일한 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부인함은 자강당적인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 지체들 소식

▶ 영아부 / 교사들이 신앙 생활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청 아버지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감사하는 선생님들, 전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된 선생님, 그밖에 때를 따라 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선생님들로 가득찬 영아부로 나와서 함께 예수님을 배워가며 믿음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송혜정 통신원)

▶ 의료전도회 / 매주일 4부예배 후 의료전도부설(교육관 20호)에서 진료 및 상담을 하고 있다. 첫째부는 한방 진료, 치과 상담, 둘째부는 정형외과, 일반외과, 의사들은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넷째부는 일반 병과를 실시하는데, 성도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 중등1부 / 지난 20일(금)과 21일(토) 1박 2일로 있었던 겨울수련회를 학생 163명, 교사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학부 형제들과 누님들, 그리고 누나들께서 오셔서 공동체훈련도 시켜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감사하느라 드립니다. 포로새서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감추어진 보

물 찾기"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되었는데 감추어진 보물이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배웠으며 그 보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중등2부 / "선생님, 성경은 수면제인가봐요? 왜 이렇게 졸려요?" 과별로 실시되는 저녁 성경 읽기에서 졸음과 싸우던 우리 친구의 하소연이다. 시간시간 정해 놓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졸음도 휴식도 바꿀 여유가 없었다. 성경 읽는 중간중간에 가끔씩 받았던 사랑 한 개, 그 사랑을 입에 물고도 눈은 성경으로! 교사도, 학생도 모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주어 우리는 감격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합독함으로 신약성경 완독이라는 목표를 마칠 수 있었다. 미련 아닐, 우리 중등 2부 친구들 중 많은 친구들이 1998년 2월에 있었던 수련회로 인해 감동할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자랑할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나성애 통신원)

▶ 교정전도회 / 사무용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486급 이상 컴퓨터와 주변기기(모니터, 프린터)를 기증하여 주실 분은 교정전도회(본당 103호, 구내전화

207)나 김철환 집사(주관 581-9741, 야간 266-8426)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5교구 / 얼마전 15교구 어느 중보기도 모임에서 오셨던 대화 내용이. 자본주의가 쌓아올린 거대한 바벨탑 경제, 지금 우리는 현대판 골리앗 경제 앞에 지도자나 소시민이나 그 누구도 꼼짝을 못하고 있다. 우리 주님은 경제를 의식주로 간단히 정의하셨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마 6:25) 그리고 변치 않는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방을 주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리니"(마 6:33) 이 약속은 현대판 골리앗 앞에 하나님도 성도들에게 주신 불매물이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욱 밝게 보이는 법.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빛으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사는 지혜를 주사, 삶에서 주님의 의식,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생활과 기도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한숙정 통신원)

### 중고등부 소속장학금 신청자 모임

일시: 3월 11일 오후 4시  
장소: 교육관 307호

### 탐방 / 경비실

## 충현의 파수꾼

하나의 공동체가 질서 있게 유지되려면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각자 자기의 분담대로 조직 중 일인가에 속하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부서가 있다. 그 중에서 감시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되는 부서가 있다. 이 부서는 교회를 가득 채운 성도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잠든 깊은 밤시간에도 휴식을 모르고 깨어 있어야 한다. 오�히든 어두운 밤일수록 더욱 환하게 불을 밝히고 교회에 이곳저곳을 돌보아야 한다. 이 부서가 바로 경비실이다.

경비실의 하는 일은 순찰과 문단속, 차량 관리, 교통 정리 등이다. 교회의 안면과 질서 유지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이곳의 소관이다. 경비실의 집사님들은 동문, 서문, 경문과 지하초소에서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조직의 구성원은 모두 여덟 분의 집사님으로 모두 우리 교회의 등록교인이다. 직원들은 A조(조장 김성갑 집사)와 B조(조장 김기찬 집사)로 나뉘어서 순번제로 근무하신다. 조장을 중심으로 순발적으로 협조 체제를 이루어 봉사하신다.

이곳은 문턱이 아주 낮다.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유치부 아이들까지 이곳의 문을 두드리는대는 많실일이 없다. 언제나 문이 열려 있고 청결하구나 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를 잘 지키는 곳이다. 성도들은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 옷바래새를 고치거나 실외호를 이용하는가나 많실이지 않아도 좋다. 경비실의 집사님들이 언제나 긴장 상태에서 교회를 파수하고 있어 성도들은 언제나 편하게 이곳의 문을 두드

릴 수 있다.

경비실의 모든 집사님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일터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의 터전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로가 직장 동료이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다. 일과 신앙생활을 병행하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는 사설이건만 일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기에 매우 행복한 직업이라고 말씀하신다. 많은 세월 동안 다른 곳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근무가 참으로 고귀한 일을 하신다는 김기찬 반장님의 웃음이 싱그럽다.

경비실의 자랑거리는 집사님들의 협조체제이다. 각 초소 근무를 하는 데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서로 단합하여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가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경비실 근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극히 일부러만 하지도 공동체의 행동 양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량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 차량 관리부의 지시에 따라 문을 없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많은 고충이 따른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씀이 있다. 모든 차량은 차량관리부나 경비실의 지시에 따라 주변 총했다는 것이다.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지각 없는 행동은 삼가해 달라서 것이다. 그리고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밝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하신다. 이런 문제는 조금씩만



이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 공동체이든 말은 바 자기 일에 긍지를 가지고 목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원동력이 된다. 자기의 맡은 일이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맡았을 자기 일을 수행해 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필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

우리가 관한 잠을 잘 때에도 교회의 안면을 위해 언제나 깨어 있는 충현의 파수꾼 집사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글 / 정연희 기자, 사진 / 이윤구 기자)

## 3월 8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소프라노 김희숙

(피아노 / 김남옥)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이대리 벨칸토아카데미,

폴란드 쇼팽아카데미 졸업

성가독창 모음 CD 2집 제작

오리타리오 메시아, 천지창조, 장미빛 등 독창

찬양선교회 출강

임마누엘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나는 갈 길 모르니(한 421장)

· 예수나 우리를 버리는 소리(한 318장)

· 나의 믿음 잃을 때(한 423장)

· 너 하나님께 이물리(한 341장)

· 참 아름다워라(한 78장)



### 3부예배

트럼펫 안희찬, 임시원 부부

(오르간 / 조희영)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영남대, 경북대, 중앙

대, 대대, 경원대 출강

추계대 교수

한국레스트발앙상을 단원

할렐루야오케스트라 단원

임시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및 동대

학원 수료

동아콩쿠르 1등 및 입상,

예을 콩쿠르 최우수상

부천시립교향악단 단원 역임,

KBS교향악단 단원

할렐루야오케스트라 단원

〈찬양곡목〉

· 우리 주의 나팔소리

· 이 세상 합창(한 197장)

· 누군가 기도하네

· 하나님의 은혜로(한 410장)

· 생명의 양식



### 4부예배

오르간 조희영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연천여신학교 출강

할렐루야찬양대 오르가

니스트

〈찬양곡목〉

· Albinoni Adagio

· 면류관 가지고(한 25장)

· 십자가를 짊어(한 519장)

5부예배

대학부 여성중창단

리더 / 김서영

단원 / 김서영, 구자은, 조수진, 최근희,

김재영, 최지혜

대학부 오케스트라

악장 / 이예스더

〈찬양곡목〉

· 기록 기록 기록

· 귀의 기록실 생각할 때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 다 찬양하라(한 21장)



# 교회소식

## ●알림

1. 성찬식 / 오늘 I, II, III, IV 부예에서 분당에서 있습니다.
2. 제직회 안내 / 3월 8일(다음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3. '98 전반기 성경연구원 개강 / 수강을 원하시는 성도들은 3월 6일(금)까지 교육국에 신청하십시오. 3월 7일(토) 19:00 배다나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립니다. · 과장: 주만 성경공부, 직분자 양육반,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4. 자원봉사 신청 접수 / 3월 8일(다음 주일)까지 신청서를 성경통신함이나 사무국에 제출하십시오 바랍니다.
5. '98 교회요람 발간 / 오늘부터 구역장을 통해 각 가정에 한 부씩 배포됩니다.
6. 크로마하프 · 만돌린 신인 대원모집 / 3월 29일까지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김옥순 집사(크로마하프 548-6916), 이연순 집사(만돌린 3463-0434)

## ●모임

1. 정기당회 / 4일(수) II부예 후, 당회실
2. 장로 화요새벽기도회 / 3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감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404호
4. 남녀전도부 각 구역 연합회장, 부회장 월례회 / 오늘 15:00, 칼빈홀
5. 의료전도회 월례회 / 오늘 15:30, 의료전도회실
6. 실업인전도회 주일기도회 / 매주 15:00, 실업인전도회실
7.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5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실
8. 교정전도회 월례회 / 오늘 15:00, 갈릴리움
9. 안수집사회 월요새벽기도회 / 2일(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10. 권사회 제1지회 월례회 / 4일(수) I부예 후, 사랑부실

## ●남녀전도회

1. 마리아15 / 8일(다음 주일) III부예 후, 유아부실

## ●결혼

1. 박형웅군(박익신 장로, 김은애 권사의 아들, 제2교구)과 전수영양(전승현 성도, 양순화 집사의 딸) / 7일(토) 12:00 거구장
2. 홍성호군(홍일표 장로, 박은희 권사의 아들)과 이경희양(이범장 성도, 서인희 권사의 딸, 제2교구) / 7일(토) 13:30 혜성교회

## ●주요 및 전례외 변경

1. 나혜순 권사, 비혁희 집사, 박익신 집사 / 경기도 이천시 중포동 244-3 대우2차A, 203-1101, 전화: 0336-635-9457

##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
| 457 | 윤영자 | 1  | 루디아  | 유주화(19) | 470 | 이홍주 | 19 | 대학부  |        | 483 | 류성희 | 5  | 마리아  |         |
| 458 | 김진성 | 9  | 고등부  |         | 471 | 곽은영 | 19 | 대학부  |        | 484 | 김경필 | 5  | 요한   |         |
| 459 | 심행자 | 7  | 청년2부 |         | 472 | 정현주 | 19 | 중등부  |        | 485 | 박여진 | 7  | 요한   |         |
| 460 | 유홍균 | 19 | 대학부  |         | 473 | 김황현 | 19 | 대학부  |        | 486 | 정정화 | 15 | 마리아  | 이희자(3)  |
| 461 | 허영민 | 19 | 대학부  |         | 474 | 송수주 | 19 | 대학부  |        | 487 | 박윤진 | 16 | 요한   | 최호일(15) |
| 462 | 김정훈 | 19 | 대학부  |         | 475 | 임선미 | 19 | 고등부  |        | 488 | 김철순 | 16 | 마리아  | 최호일(15) |
| 463 | 최순희 | 19 | 대학부  |         | 476 | 임태봉 | 19 | 대학부  | 이학천(1) | 489 | 이병학 | 19 | 고등부  | 이진규(7)  |
| 464 | 최영진 | 19 | 대학부  |         | 477 | 김진세 | 19 | 대학부  | 김진화(6) | 490 | 민재홍 | 19 | 대학부  |         |
| 465 | 정지현 | 19 | 대학부  |         | 478 | 정시진 | 19 | 청년1부 |        | 491 | 이재현 | 19 | 대학부  |         |
| 466 | 최광훈 | 19 | 대학부  | 양인식(5)  | 479 | 조원영 | 19 | 청년1부 | 황정자(5) | 492 | 오정선 | 4  | 청년2부 |         |
| 467 | 이승미 | 19 | 대학부  |         | 480 | 이민희 | 19 | 청년1부 |        | 493 | 노주원 | 6  | 마리아  | 노순옥(2)  |
| 468 | 박수현 | 19 | 대학부  |         | 481 | 주영희 | 3  | 마리아  | 신종기(3) |     |     |    |      |         |
| 469 | 김정윤 | 19 | 대학부  |         | 482 | 박성희 | 3  | 중등부  | 신종기(3) |     |     |    |      |         |

※종교개혁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금주의기도제목

- ① 김창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와 믿는 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 ②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종헌소석강학생이 선발되게 하소서.
- ③ 남도교 구역요일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교제 가운데 부흥하게 하소서.
- ④ 다음 주일예배 전 찬양을 담당하는 소프라노 김희숙(임마누엘찬양대 솔리스트, 2부), 트럼펫 안희찬, 임시원(할렐루야오케스트라, 3부), 오르간 조희영(할렐루야찬양대 오르가니스트, 4부), 대학부 여성중창단(5부)들이 영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 ⑤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 이들이 선교의 대열에 힘써 참여케 하소서.
- ⑥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서게 하소서.
- ⑦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창인

## ■위임목사

김성관

## ■부서

이홍선 김희수 조윤재 이종대 현상민 박경환 김동성 한근수 김광수 전현홍 김세철 이윤수 김갑진 정현민 조문찬 조원수 김동하 차병문 김병대 김인식

## ■합동목사

윤영택 박용홍 노봉린

## ■선교사

이종규 안석렬 김영래

## ■감동사

이종경 박노철

## ■원로전도사

이두란

## ■어전도사

최순복 정원희 현정진 정복인 장영태 임태주 김정자 배옥민 최지혜 손비희 송광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수 한영준 박종화 박희자 김영숙 김옥순 최영란

## ■교정전도사

박영미

## ■백신전도사

박진기 엄현일 한승일 이종란 김영기 송원희 김광중 조재민 최진우 허유근

## ■선교전도사

정성기 장은희 박태양

## ■평신도선교사

유병재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민

1998. 3.1 제98-9호

신명기 17장 ~ 여호수아 6장

## 충헌 성경통신 강좌

(예) 교구 지역 구역( ) 이름

1. 다음 성구는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신명기 17 ~ 23장)

- 1)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있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 )
- 2) 너의 종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라 ( )
- 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 된 소유의 땅에서 ( )
- 4)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 )
- 5)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도록 두지 말고 달일에 장사하여 ( )
- 6)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 )
- 7)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신 것들을 다하지 말라 ( )

2. ( ) 안에 없이는 말을 넣으시오. (신명기 24 ~ 30장)

- 1) 포도를 탄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격과 ( )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 2) 너희가 예루살렘 나오는 길에 ( )에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 3)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 )으로 인정하시라
- 4) 무죄자를 죽이려고 ( )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할 것이요
- 5)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 )로 팔라하니 너희를 살자가 없으리라

6) 오만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기니와 ( ) 일은 영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7) 내가 생명과 사망과 ( )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리라

3. 다음 성구를 완성하시오. (신명기 31 ~ 34장)

- 1)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 2) 너희의 생명이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 3)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 4) 이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4. ( ) 안에 맞는 것에 O표, 틀린 것에 X표 하시오. (여호수아 1 ~ 6장)

- 1) 우리는 법에서 아브라함을 청종한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리니와 ( )
- 2)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울을 거기 유하게 ( )
- 3) 여호와와 언약계를 맺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물가에 굳게 있고 ( )
- 4)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었음이라 ( )
- 5) 네 밭에서 산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 )
- 6)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령이 그 땅에 퍼지니라 ( )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 '98 충현소석일반장학생 선발 완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

# 일정기준에 부합한 전원에게 수여키로

충현소석전액장학생 최종 선발은 추후에  
장학금 수여식은 오늘 오후 4시 교육관 307호에서

**도** 서장학회는 지난 3월 4일 정기당 회를 통해 '98 충현소석일반장학생 선발을 확정짓고, 오늘 오후 4시에 교육관 307호에서 장학생선발자 모임을 가진 후,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치면서 총 199명의 신청자 중 선발기준에 합당한 대상자로 분류된 150명 전원에게 총 1억 7백 3십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국내의 경제사정과 성도들의 생활현황을 고려하여 최초 계획에서 대폭 수정 변경하여 결정, 승인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발된 충현소석일반장학생들은 일반대학원생 9명(각 120만원), 신학대학원생 4명(각 120만원), 대학생 77명(각 100만원), 고등학생 27명(각 30만원), 중학생 33명(각 20만원) 등이다.

도서장학회에서는 장학금 수여자들에게 신분증 지참을 당부하고 있다.

금번 장학생 선발의 심사기준은 1) 세례교인 이상 2) 대학생 이상은 1996. 12. 31이전 등록자, 중고생 및 예과나부사는 1997. 12. 31 이전 등록자 3) B학점 이상의 학교성적 4) 선교회에서의 참신한 장학지도 수료 여부 5) 한 가정 2인 이상 추천의 경우, 성적우수자 및 성취학년을 우선으로 6) 서류심사(100점), 논술(100점), 면접(100점), 선교훈련(50점), 교회 봉사 활동 여부(점수) 등이었다. 이 심사는 당회가 위촉한 12인의 심사위원단(목사와 장로 각 6인)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한편 충현소석전액장학생 선발은 금번 선발자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선발, 지원하기로 하고, 20여명의 대상자들을 선발하여 신앙훈련 및 개인별 멘탈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추후 선발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들은 '천국입문 양성'에 부합하는 소수정예화된 일꾼들을 선발하는 일을 위해서 의미있는 시간을 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충현의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위해서 신도들도 관심을 기울여 기도로 동참해야 하겠다. 충현소석일반장학생 선발자는 아래와 같다.

◆신대원  
김일승 박민석 이삼열 이창주  
◆대학원  
교병식 권영일 김유영 성명현 이성혜 최정락 홍윤희 이미경(91-636) 이미경

(96-1146)

### ◆대학생

강신애 강진수 구자민 강광석 김민준  
김법진 김소정 김승남 김수연 김승현  
김은혜 김경아 김지이 김지혜 김복중  
김현정 남석우 남지연 박유환 박유화  
박은아 박은영 박정수 박정은 박지선  
백경희 손상현 손소영 손예디 송연자  
송정목 신민주 신지현 신창훈 신현진  
안명배 안의정 안우연 안찬호 엄소연  
오미선 오윤진 윤철중 윤혜신 윤 회  
이민욱 이병주 이보형 이신희 이수혜  
이영선 이재욱 이주희 이지수 이태훈  
이혜경 이혜만 이혜은 강대선 장상원  
정안나 정우정 정은진 정은주 최미영  
최은정 최인숙 최인애 최형원 한유리  
한정근 한정석 한준혁 홍치순 황성신  
황진원 황자영

### ◆고등부

강석진 강지영 구본창 김수정 김시화  
김아란 김우승 김희영 김희정 류재근  
일반석 오빛나 오태식 우성민 우지혜  
유지성 이광민 이영환 이태원 임우영  
임현수 장혜원 정국웅 지은정 허주안  
홍사라 황순용

### ◆중등부

강승연 강분희 김기현 김문철 김성애  
김슬아 김경식 김경민 김지영 김지옥  
김한나 김현호 김희숙 나지원 민윤화  
박 훈 배상진 변은정 변영은 연혜실  
유민석 유종훈 윤지현 윤혜정 대오  
이동수 이동주 이 준 이태로 진세환  
진희정 한현아 함용복

## 춘계 대심방

말씀과 사랑으로 힘입는 가정과 구역들  
소외되는 가정 일도록  
세심한 관심 기울이기로

매년 3월부터 시작되는 춘계 대심방이 각 구역별로 시작되었다.

각 구역에서는 금번 대심방을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정해진 심방 일정에 따라 대주 화, 목, 금요일에 실시하고, 특별히 그동안 잘 돌아보지 못했던 가정들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심방하기로 했다.

그동안 심방 일정이 잘 맞지 않거



### 아름답게 마쳐진 선교수련회

지난 2월 26일에서 28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총 240여명의 참가자와 3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1998년 겨울 중·고·대 청소년수련회가 아름다운 화합과 말씀과 기도의 풍성한 열매 가운데 잘 마쳐졌다. 금번 수련회는 장학금 신청자 다수가 동참하여 전국입문으로 양성될 일꾼에게 꼭 필요한 선교적 마음가짐을 다지는 귀한 기회이기도 했다.

## 3월 11일 부지역장·구역장 영성훈련 위임목사의 특강으로 시작

전 후반기 각 12주씩 총 24주에 걸쳐 실시될 부지역장·구역장 영성훈련이 오는 11일 수요일부 예배 후 본당에서 김성관 위임목사의 특강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18일부터는 각 교구별로 예정된 장소에서 교구 지도 교역자의 인도로 주체별 특강이 실시될 예정이다.

교회는 금번의 영성훈련을 통해서 구역을 인도하고 성기는 일꾼들이 말씀과 바른 신앙지식을 쌓아 구역에 이끌어 나가는 일에 실질적인 도움과 격려를 받고, 이를 통하여 구역과 교구, 교회 전체가 전진한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 위에 든든히 세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되는 일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은 교회의 뜨거운 기도의 지원이 요청된다.

### 제직회 모임 안내

- 일시: 3월 8일 (오늘) 찬양예배 후
- 장소: 본당

① 감창인 복사의 이사야서 강해 ①

#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의 상태

(이사야 13:19-22)

**본** 문은 바벨론이 공의로운 심판자인 신 하남에게 멸망을 당한 후의 참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 주는 예언입니다.

## 1.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의 바벨론

### (1) 일국의 영광이었습니다

당시는 바벨론처럼 강대하고 문명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정말 일국의 영광이었습니다. 성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고 성벽은 마치 6월이 달릴 수 있도록 두텁게 쌓였습니다. 이 절벽 같은 성에는 구리로 만든 문이 100개나 있었는데 동서남북으로 각각 25개의 문이 서로 마주 보고 있고 그 사이로는 큰 길이 바둑판처럼 놓였습니다. 바벨론 궁전에서 쓰는 것은 금구름인데 거기에 아로새긴 조각이 모두 다릅니다. 성 안에는 3년을 먹고도 남은 양식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테스 강물로서 성 주위를 돌게 하여 방어선을 쳐서 나라는 수도를 수 없도록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니다.

### (2) 갈대아 사람의 자랑스런 노래가이었습니다

‘노리게’란 시집가는 여자가 함을 차는 것으로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을 이와 같이 노리게처럼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니다.

## 2.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의 바벨론

### (1) 소돔 고모라같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망한 도시, 소돔 고모라처럼 바벨론도 망하겠다고 하였습니니다.

소돔 고모라성은 땅 위의 사람도, 산도, 나무도, 짐도 하나도 없이 모두 타버린 것은 물론이고 땅 속 깊숙이까지 다 들어갔습니니다.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소돔 고모라가 볼타 버린 자리는 고기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죽움의 바다, 사해가 되었습니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화려한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찬란한 바벨론아, 네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한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라” 하면서 망한 후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니다.

### ① 바벨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곳에 처할 자가 없었고 기한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20절)

소돔 고모라가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것처럼 수십만 명이 사는 바벨론이 멸지 않은 장래에는 한 사람도 살 수 없도록 망하겠다고 하였으니 대단히 끔찍한 말씀입니다.

### ② 상업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20절)

‘아라비아 사람’은 장사꾼입니다. 옛날 이들은 무리를 지어 약대를 타고 사막을 건너다가 해가 지면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밤을 묶어 먹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또 길을 떠났습니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면 이들도 그 자리에는 장막을 치지 않겠다, 즉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장사꾼들이 바벨론성이 있던 자리에서는 하룻밤도 자지 않게 될 정도로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 ③ 목축업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20절)

당시의 목자들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풀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하는 유목 시대였습니니다.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자들도 풀을 따라 다니는데 바벨론이 망한 그 자리에는 목자들이 양을 몰고 지나가는 일도 없겠고 하니 참혹한 멸망입니다.

### (2) 바벨론에는 짐승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한 곳에 짐승이 있겠다고 하였으니, 생물이란 아무것도 살지 못하게 된 소돔 고모라보다는 멸망 상태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벽에는 물론 성안에도 짐승들이 살겠다고 하였는데 그 형편이 어떠한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며 호령하던 그곳에 호랑이 새끼인 사람이 살겠다고 한다면, 또 ‘호려한 전’ 곧 우상을 섬기던 장소에는 들개가 출몰하고 합니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170년이 안되어 바벨론성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성취됩니다. 전지가 변할망정 하나님의 말씀은 일침일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심판을 받은 바벨론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광장 선전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장난감이 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마귀의 장난감 노릇을 하다가 죽는다면 차라리 나지 않았던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죄를 많이 범하였는데, 첫째, 교만하였습니니다. 돈만 있어도 교만한데 권세와 문명이 있으니 바벨론 사람들은 교만할 만합니다. 둘째, 바벨론 사람들은 잔인했습니니다. 사람을 죽이면 죽어 가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때에 그것을 노래처럼 들으면서 술을 마셨으니 바벨론은 잔인하였습니니다. 셋째, 바벨론은 음란했습니니다. 넷째, 바벨론은 하나님마저 업신여겼습니니다.

이런 바벨론을 향하여 주의 종들이 책망하였습니니다. “망할 것이 회개하라!”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종들의 권면과 책망을 잘피쳐들 여기도 듣지 않았습니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몰아하는 날이 왔습니니다.

지금 울면 영원히 웃고, 지금 울지 않으면 영원히 울어야 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로 미리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첫째,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바로 살리는 결심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간구하는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 (2)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전능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건설에 전능하십니다.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니다. 아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조롭게 하시니 승리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건설하는 면에서 전능하시므로 믿음으로 전진한 하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설하는 면에서 전능하시니 믿고 용맹스럽게 일인을 해야 합니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판에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강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거짓말도 속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반대할 자도 없

습니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통고로 절그릇을 깨뜨리는 이상으로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죄를 범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독사처럼 완악하지 말고 심판의 물동이가 떨어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파괴하는 일에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배워야 합니다.

### (3)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도구로 쓰시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품, 지식, 물질, 권세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욕심에서 떠난 자를 써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를 써 주십니다.

하나님이 써 주시므로 감옥에서 갓 나온 요셉은 출입증명서도 없고 소개장 하나도 없었으니 일약 대국의 국부처럼로서 80년이나 세계를 호령했습니니다. 요셉은 개인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서했습니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선 공의로웠습니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꾼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광장 선전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장난감이 됩니다. 세상에 사람으로 나서 마귀의 장난감 노릇을 하다가 죽는다면 차라리 나지 않았던 것만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써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물동이에 빠져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에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고 대물절도 주에게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다가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ㄴ

# ● 김성관 목사의 다음 주일 설교 ●



## 라오디게아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3:14-22)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페소, 스미르나, 비자도, 두아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환상을 전하고 그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교회는 그들이 처한 특정한 상황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고도 개인적인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각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는 예게해 부근 소아시아에 위치하면서 서로를 에워싸고 있었고, 이 지역은 로마 무역로의 일부였습니다. 1세기 당시의 라오디게아는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AD 60년에 큰 지진을 겪고나서도, 국가의 재정적인 도움이 없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부강했습니다. 상생해 보십시오. 만일 에페소라소로가 엄청난 지진을 겪은 후에 국가로부터 아무런 재정적인 도움도 없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다면 이는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주로 아마포, 목재, 금, 주류 등의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를 바탕으로 '귀'와 '눈'에 관해 특별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의술장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2천년 전에 세워진 이 도시는 완전은행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이처럼 풍요롭고 자유로운 도시, 그리고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북에서 흐르는 온천수를 남쪽으로 약 16킬로미터 되는 곳까지 연결시키고, 또한 샘에서 나는 물을 북쪽 약 10킬로미터까지 공급할 수 있는 수로시설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이 물은 단증을 풀이려 뿐 아니라, 마시고 썼고 하는 등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라오디게아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중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4절).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소개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충성되고 참된 중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편지 서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도록 이 편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목을 집중시킵니다.

니다.

힘입고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편지는 특별히 라오디게아교회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호소력있게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편지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다른 여섯 개의 편지와는 달리, 특정한 죄에 대한 지적도, 특별한 칭찬의 말씀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교회는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나 열심은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금과 좋은 의복, 발달된 의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종교적인 실천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전혀 다른 그들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끈고하고 가련하며 눈물었고 별거벗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께로부터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환을 사서 입어 별거벗은 수치를 감추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수 있도록 치료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부요함과 풍족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들의

는 흠용했습니다.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쾌적한 시설을 갖추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들을 보면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처럼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감찰하셨고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흠용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며 날마다 성경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올바른 심정으로 생활을 하며 불쌍한 자들을 돌봅니다. 이러한 것들만 보면 참으로 신실하고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아십니다. 또 미지근한 것도 아십니다.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중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지근한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 일에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편지를 맺으면서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온 신과 또한 각 사람의 뒤편에 서서 두드리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라오디게아교회를 위한 본문의 편지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너무나 자주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앞에 경배하는 것을 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마음과 삶, 영혼, 생각, 꿈과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원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충현교회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충현교회가 회개하는 자를 간구합니다. 저는 충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으로 좇아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같이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너무나 자주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앞에 경배하는 것을 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마음과 삶, 영혼, 생각, 꿈과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원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충현교회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라오디게아의 독특한 문화적, 사회적 상황에 잘 맞추어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는 라오디게아인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들의 상태에 책망하셨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일어서 도하여 내치시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대하여 라오디게아인들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에 대한 그들의 특별한 감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피부에 당겨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더운 물과 찬 물이 항상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미지근한 물은 배를 아프게 하는,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은 무엇이든 풍족

금은 헛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만이 진짜입니다. 그들의 좋은 의복들도 일시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흰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들의 의복도 완전히 헛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치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러한 금과 의복과 치유의 은총이 오직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만 주어인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연이 진짜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교회는 회개할 줄 모르는 안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미지근한 물을 배를 아프게 하는,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고 하십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라오디게아교회

## 선교의 성경적 근거 2

## '열국의 하나님'에 담긴 선교적 의미

## 홍수 사건

창세기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심판하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은 계속되는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니 수밖 없었다. 그러나 그 진노는 자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심판 전에 하나님은 먼저 경고하신다(창 6:1).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하되록 명하셨고 아울러 그 상징으로 방주를 짓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나 만일 인간이 그의 배후시는 구원을 거절할 때는 심판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따라서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이 곧 복음이며 이 복음에 대하여 응답해야 할 의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독교 선교의 필요성이 있다.

##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선교적 의미를 준다.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기를 추구했다. 인간은 그들 자신의 교만한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의 목적지를 거역했다(창 11:4).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에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존을 추구하였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인간의 패역성은 첫째로 불순종 가운데서 인간들 상호간의 연합으로 나타났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창 11:2-4),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하므로 안전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 중의 하나가 인간들의 연합이다. 두번째로 인간이 구하는 것은 자기 성취이다. 하나님을 떠난 공허감을 이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성취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의 위치에 스스로 오르려 하는 시도이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부하고자 하는 의도이다(창 11:3-4).

## 열국의 하나님

1) 이방나라  
"나라"라는 말이 창세기 10장 20절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이거나보다는 종교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이다. 인류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였으나 홍수 이후의 인간들이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그들에게는 혼란이 왔고 드디어 각자의 길을 가서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미래에도 그러하실 것이다. 그는 모든 나라의 창조주인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창조주이므로 창자 자신을 창조주로, 특히 온 세상의 구속주로 나타내실 것이다.

## 2) 민족의 목적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민족의 목적은 구약성경의 보편적인 통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모든 국가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고, 그의 주의 깊은 인내와 심판의 목전에서 서 있다. 민족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현실의 드라마에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장식물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의 인류로서 민족들은 그들 자신이 사역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활동과 사역은 전 인류를 향한 것이었다. 이것은 대조 역사의 기록인 창세기 1-11장의 근본적 원리 중 하나이다. 그것은 또한 요한계시록의 종말 역사의 열거적인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자신을

계시하시고 처음과 나중으로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서 통해 드러내시며 우리들 사이에서 거주하신다. 그는 모든 언어와 민족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왕좌에 모여들 때까지 그의 사역을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라들 사이에서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지루하고 끊임없는 활동들을 통하여 인생행로를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계신다. 창세기 10장에서 민족들은 오직 예정된 것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선(line)은 역사의 과정에 연결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에 따를 때까지 중단이 없게 된다.

##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된 열방민족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널리 흩어져 살게 되자 그들은 곧 홍수의 교훈을 망각하고 만났다. 그들은 영적인 유산을 상실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도시와 성을 건설하고 제국과 왕조를 세웠으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났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르러 그들의 도덕적 영적 타락은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렀으므로 문자 그대로 "이방 나라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떠났다고 하여도 결코 그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기고 오도적인 풍습을 따랐으나 여전히 여호와와 우주적인 통치 아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그렇지 않은 간에 여호와께 속한 존재로서 그에게 책임을 져야 할 존재였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계에 미치는 것이다. 우리는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이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시야와 이모스의 예언에서 처럼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잘

표현되어 있는 곳은 별로 없다. 다음과 같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 아시리아 같은 이방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동일한 범주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사 19:25).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호와와 고레스에 대한 언급이다(사 44:28, 45:1, 4).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임을 말한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내로 살피시며 심판하신다. 즉 하나님의 사역의 활동은 전세계적이다. 이 점에서 오히려 성경은 이스라엘보다 이방 나라들에게 맞는 교훈이 더 많다. 선지서에서는 비유적으로의 구원과 심판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신다. 창세기에서는 이방인의 구원과 심판을 말씀으로부터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선교위원회 제공)

## 알림

## 선교사 자녀에게 책을 보냅니다

선교위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현지에서도 그 국을 잊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적극 동참하시어 보낸 자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종류: 중·고등학교 양서

(눈술교재 포함)

• 접수: 선교위원회 사무실 (선교관 406호)

## 중·고·대·청 선교수련회를 다녀와서



## 믿음의 고난 받을지라도

이 민 정(대학부)

선교수련회에 들어오기 전 제 심정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뿔뿔히 찢어졌다. 기도원에 들어오기 3월 전 기도하던 중 '믿음의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예감이 마음 한 구석에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게속 기도하면서도 그에 대한 답을 확인하지 못해 답답해 하던 중 이번 수련회에 들어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난이란 정당한 삶, 선교사로서의 삶에 다짐한 이후 받게 될 필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 놓은 이 순간 이전 앞으로 받을 훈련과 고난이 기대와 감사로 기다려지기만 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제껏 기다리셨던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차마 용기가 없어 하지 못했던 모든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마치니 그지 감사의 기도만涌옵니다. 나를 변화시킨 이번 수련회, 언제까지나 제 마음 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